▶▶ 매일 INDEX

9면
도시재생 정책 추진 '스타트'
무주도시재생지원센터 문 열어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음 4월 30일) 제254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道, 포스트 코로나 中企 살길 찾다

경제 활력화 실무위… 중소기업분야 보완책 강구

기업CEO · 전문가 현장중심 추가 대책발굴 토론

전북도는 21일 전북테크노파크 2층 회의실에서 중소기업분야 애로사항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책을 강구하기 위해 경제 활력화 실무위원회를 했다.

지난 7일 전라북도 포스트 코로나19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제 활력화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짐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 기업지원과 및 기업CEO, 기업지원 유관기관, 학계 등 실무자 중심으로 중소기업분야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좀 더 현장 중심의 추가적인 대책 발굴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 것이다.

15명의 실무위원이 참석한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올해 2회 추경까지 반영된 경영안정자금 확대, 특례보증 연계 코로나19 특별자금 지원, 정책자금 거치기간 연장, 기술인력 유출방지 지원금 사업 등 추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지원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발굴을 위한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의견들은 오는 6월에 개최될 '경제 활력화 비상대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중소기업 성장촉진 지원 및 전라북도 경제신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이남섭 기업지원과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도내 제조업이 활력을 찾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추가적인 대책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중소기업체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쟁력 · 자생력 제고 지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 확산 등 新트렌드 수요가 반영된 신규 사업 및 국가예산 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거리두기 하며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인 2020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21일 전주시 호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엔에스파트너스 컨소시엄(연합체)과 새만금 1호 방조제 인근 명소화 사업부지에 관광개발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새만금 관광명소화 부지에 테마파크·리조트 들어선다

개발청, 엔에스파트너스 컨소시엄과 투자협약… 2025년까지

새만금개발청이 ㈜엔에스파트너스 컨소시엄(연합체)과 새만금 1호 방조제 인근 명소화 사업부지에 관광개발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사업시행 주관사인 ㈜엔에스스튜디오와 에스티엑스건설㈜, ㈜군장종합건설, 우상건설㈜, (사)한국브이알에이알콘텐츠진흥협회 등 5개사와 새만금개발청 · 전북도 · 부안군 ·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여했다. 명소화부지 관광개발사업은 올해 5월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813억원이다. 1단계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일정에 맞춰 브이알(VR)테마파크와 고급형 리조트를 건설하고, 2단계로 2025년까지 테라스형 가족 리조트와 전시 컨벤션센터 등을 지을 계획이다.

테마파크와 리조트는 사업의 조기 안정화와 운영 차별화를 위해 분야별로 관련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회사가 담당한다. VR테마파크는 한국브이알에이알콘텐츠진흥협회에서 사업 콘텐츠와 시설을 개발 · 운영할 예정이며, 리조트는 세계적인 체인망을 보유한 인터컨티넨탈호텔그룹과 계약해 운영하게 된다. 엔에스파트너스 컨소시엄은 협약식 이후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사업시행법인을 조속히 설립해 사업시행자 지위를 인정받고 착공에 나선다.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기본계획 · 실시계획을 통합한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4월까지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6월에는 개발사업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엔에스스튜디오 윤상규 대표는 "국제적인 관광지이자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새만금 조성에 VR테마파크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새만금 지역 관광에 큰 획을 긋는 사업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관광개발사업으로 884명의 고용효과와 1614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20년간 운영 시 고용효과는 1만3577명,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조1119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VR테마파크와 리조트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 유관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실종여성 연쇄살인' 최신종 포토라인 안 선다

신상공개… 이미 구속기소 · 현장검증도 없어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종(31)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뒤 검찰로 송치될 때 포토라인을 통해 피의자의 모습이 공개되지만, 최신종은 이미 첫 번째 범행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현장 검증도 고려하지 않으면서 최신종의 모습은 법정에서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찰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정신의학전문의 등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신종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확보, 공공의 이익 등의 이유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최신종의 신병이 이미 검찰로 넘어가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법무부의 새 공보준칙(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 소환 금지로 인해 사진이 아닌 최신종의 실제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 과정에서 포토라인 공개 여부도 논의했지만 피의자가 이미 구속 기소된 데다 현장 검증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얼굴 노출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신종은 지난달 15일 자정께 아내의 지인 A(34 · 여)씨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했다.

지난달 18일 오후에는 부산에서 전주로 온 B(29 · 여)씨를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최신종의 차에 탄 뒤 연락이 끊겨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은 최신종이 두 번째로 살해한 부산 실종여성 사건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